

동서양문명의 만남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1. 개항 전후 조선인들의 세계 인식

1) 청, 일본의 개항과 조선의 위기 의식

- 양요와 최익현의 척사론(1866년): 소중화의식, 불평 등조약 체제하 교역관으로 서양의 경제적 침투 경계 (농산품=필수품, 공산품=사치품 인식)
- 1876년 상소 ‘왜양일체론’: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서양의 앞잡이라는 인식
- Cf. 고종, 왜양분리론(양인은 양인, 왜인은 왜인=>조일수호조규 체결로 개항 시작)
- 대원군의 공려의식: 청의 이홍장의 영향

1. 개항 전후 조선인들의 세계 인식

2) 조선책략(1880)에 대한 반대론

- 조선책략의 내용: 조선은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고, 러시아를 제어할 만한 나라는 중국만한 나라가 없다. 또 중국이 사랑하는 나라는 조선만한 나라가 없다...미국은 항상 약소한 자를 돕고...(친청, 연미, 결일<->방아라사)

<=반론: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미국을 타인의 종용에 의해 스스로 끌어들이한다면...

1. 개항 전후 조선인들의 세계 인식

<=반론: 러시아 오랑캐는 본래 우리가 미워할 바가 없는 나라로서, 먼 나라와의 외교에 기대어 가까운 이웃을 배척하는 일이 되어...

<=반론: 일본은 원래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였는데, 갑자기 일본 천황이 존칭을 써서 국서를 보내오니...

⇒ 러시아, 미국, 일본은 모두 오랑캐

⇒ 21세기 한반도의 신조선책략은?

용미, 통러, 존화, 결해(일 or 호주/동남아 등)

2. 개화정책에 대한 척사-개화의 갈등

1) 개화정책의 시작-동도서기론

- ▶ 청의 양무 운동을 모델로 한 개화정책의 추진

2) 임오군란- 反개화운동, 청의 진압과 대원군 납치. 청군의 용산 주둔 시작

- ▶ **1882년**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(‘속방’ 규정, 한성개잔권)
- ▶ 사대이레 事大以禮 자소이덕 字小以德’-> 종주권 강화

2. 개화정책에 대한 척사-개화의 갈등

3) 갑신정변- 일본 명치유신을 모델로 한 급진 개화파의 정변 시도와 좌절

- 개화파 분열, 청에 대한 입장 차이
온건파 김윤식, 어윤중 ‘자주’ <-> ‘독립’
급진파 김옥균, 박영효

4) 갑신정변 후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 강화

- ▶ 1885년 위안스카이(원세개)의 고종 폐위 시도
(조러밀약에 대한 반발)

5) 1880년대 후반 미국을 통로로 한 서양 기술 수용

- ▶ 1887년 경복궁 건청궁 최초의 전등 가설, 미국군사교관 파견, 개신교 선교사의 입국과 포교

위안스카이



개항기 조선에 온 서양인들(1)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최초의 서양인 고문관-뮐렌도르프

- ▶ 1882년 조미조약 이후 다양한 국적과 직업의 서양인들 조선 방문, 체류
- ▶ 외교관, 고문관, 여행가, 선교사, 상인, 군인 등등
- ▶ 서양문명의 전달, 조선을 세계에 소개한 역할

1) 뮐렌도르프(P.G.von Möllendorff, 목린덕 1848~1901)

- ▶ 조선에 온 최초의 서양인 관료(고문), 독일인. 최초의 서울 거주 서양인
- ▶ 19세기 유럽의 동양학 열풍과 몰락한 귀족의 꿈(부와 명예, 모험)
- ▶ 청나라 해관 근무 후 영사 근무

최초의 서양인 고문관-뮐렌도르프



최초의 서양인 고문관-뮐렌도르프

- ▶ 1882년 9월,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고문으로 파견(외교고문, 해관 운영)
- ▶ 서울 박동=현재의 조계사 근처 민겸호 저택에 거주
- ▶ ‘양귀(洋鬼)’에 대한 조선민중의 관심
- ▶ 서양식 생활용품 수입(from 상하이, 요코하마, 샌프란시스코, 런던 등지. 밀가루, 건포도, 커피, 샴페인, 햄 등 식료품, 생활용품과 가구)

최초의 서양인 고문관-뮐렌도르프

- ▶ 35세 서양인 고문관의 개혁안 제시, ‘문명화’의 사명감과 열정
- ▶ 입헌군주제 실시, (양반)신분제 철폐
- ▶ 조세부담 경감, 화폐제도 개혁(cf. 당오전 주조), 국립은행 설립, 재정수입 증대(인삼, 광산)
- ▶ 근대적인 사법, 군제 개혁
- ▶ 한글 전용, 근대적인 학교 교육(800개 국민학교 설립-> 육영공원 설치)
- ▶ 산업박람회 개최, 추가 개항
- ▶ 조러밀약 추진으로 청에 의해 소환당함

최초의 서양인 외교관- 푸트

- ▶ 1883년 4월, 인천 도착한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(Lucius Harwood Foote)
- ▶ 1882년 4월, 조미조약 체결 후 전권공사 파견에 대한 고종의 기대 “영토 확장에 욕심이 없으며,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부국강병한 나라 미국” 이 “조선의 독립”을 인정해 준 것으로 인식하고, ‘기뻐서 춤을 추었다’
- ▶ Cf. 1871년 신미양요 이후 ‘척화비’
- ▶ 세계 지리서 해국도지(위원), 영환지략(서계여), 지구전요(최한기) 등의 영향
- ▶ 박규수의 수교론과 호의적 미국관
- ▶ Cf. 제너럴셔먼호 사건 당시 평안감사 박규수는 북학과 박지원의 손자

최초의 서양인 외교관- 푸트

- ▶ 1883년 2월 20일, 샌프란시스코 출발->일본 도착->3월 30일, 요코하마 출발-> 나가사키 도착-> 4월 2일, 미국 군함 모노카시호(신미양요 출전 군함)를 타고, 4월 7일 인천항 도착
- ▶ 4월 9일 외아문 협판 홍영식이 모노카시호 방문, 조선의 국기와 예포
- ▶ 4월 11일, 4인교와 말을 타고 인천 출발(부인은 잠시 인천 체류)
- ▶ 4월 13일, 뮐렌도르프의 집에서 외아문 독판 민영목과 조미조약 비준서 교환
- ▶ 4월 14일, 마차를 타고, 창덕궁에 가서 고종 알현, 국서 봉정
- ▶ 정동(지금의 덕수궁=경운궁 옆), 민계호의 한옥에 미국공사관 개설
- ▶ 미국무역회사(American Trading Co.)를 통해 왕실의 가구, 카펫, 전등, 권총, 대포, 가축 등 도입

개항 이후 조선에 온 외국인들(2)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초대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

- ▶ 1884년 조러조약 체결의 배경
 - 청의 종주권 강화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
 - 조선책략적 사고(방아론)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
 - 명성황후의 수원(遠)정책- 친親러미 거拒청일 정책
 - 주북경 임시대리공사를 역임한 베베르와 밀렌도르프의 친분

초대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

- ▶ 현재 라트비아(발트해) 출신, 칼 이바노비치 베베르의 부임
- ▶ 1884년 6월 20일, 제물포 도착. 김옥균이 안내(청에 대항하기 위한 대러 접근)
- ▶ 1894년 청일전쟁 후 1895년 4월, 삼국간섭(러, 독, 프)
- ▶ 을미사변 후 1896년 아관파천
- ▶ 대한제국의 친러의존책과 러시아의 만주집중책
- ▶ 1898년 로젠니시협정으로 러일간 세력균형
- ▶ 1904년 러일전쟁 발발, 1905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승인
- ▶ 1907년 러일협약

조선을 네 번 방문한 여행가, 이자벨라 B.비숍

- ▶ 최초의 영국 왕립 지리학회 여성 특별회원, 여행가, 탐험가
- ▶ 조선과 중국, 일본, 러시아 여행
- ▶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(Korea and her Neighbours, 1898)
 - 1894.2~6/1895.1~2/1895.10~12/1896.10~1897.1
 - 2000부 이틀 만에 매진, 총 11판 인쇄 베스트셀러(을미사변)
- ▶ 명성황후 인터뷰, 갑오개혁 소개, 서울, 북한강, 남한강, 강원도, 평안도 여행
- ▶ 청일전쟁 발발 시 러시아군의 동향 탐색 특파원(영러의 대립 cf.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)

조선을 네 번 방문한 여행가, 이자벨라 B.비숍

- ▶ 조선의 지형, 풍경, 유적, 사람들, 거리, 의식주, 관혼상제, 무속신앙 등 소개
- ▶ 오리엔탈리즘(제국주의적) 시각
 - 타자로서 ‘동양’=게으름, 불결, 무례, 정체, 후진, 야만 vs 문명 대비, 문명화(제국주의) 정당화
 - 1896년 한성부도시개조사업 이후 변화상 소개
- ▶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

조선을 네번 방문한 여행가, 이자벨라 B.비숍



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남은 사람들

- ▶ 양화진 외국인 묘원(서울 마포구 합정동)- 선교사와 그 가족 145인
- ▶ 한강변 절두산 순교성지- 1866년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(병인박해)
 - 방아론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천주교 신자 남종삼의 소개로 프랑스 신부 베르뇌 주교와 면담,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천주교 박해(대원군 부인과 고종의 유모도 천주교 신자).
 -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 순교+전국 23만명 신도 중 8천여명 순교. 프랑스 극동함대 로즈제독의 양화진 탐색, 강화도 침공(병인양요), 외규장각 의궤 탈취.

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남은 사람들

- ▶ 언더우드-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, 1885년 1월 일본 도착. 이 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, 1885년 4월 제물포 도착. 최초의 교회 새문안교회(1887), YMCA 활동, 경신학교, 연희전문 설립.
- ▶ 아펜젤러-감리교 선교사. 1885년 4월 아펜젤러 부부, 스크랜튼 부부와 그 어머니 도착. 최초의 신 교육기관 배재학당 (1886;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) 설립, 정동교회 설립.
- ▶ 헐버트-1886년 6월 도착. 육영공원 교사. 헤이그 특사 지원
- ▶ 베델-영국 출신 언론인으로 1904년 대한매일신보 발행.